【 2015.09.21(월) 건설경제 】

경기 활성화 … 답은 民心 에 있다

SOC 확대로 지역경제 살린다더니… '정부 잣대'로 예산 편성

말 바꾸고 귀 닫은 '지역 숙원사업'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 강원 속초를 비롯해 화천, 양구, 인제 등 4개 지역주민 수백여명이 기재부 앞에 진을 쳤다. 이들 지역은 춘천~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가 지나는 곳으로 지역주민들은 생업을 접고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이 정부세종청사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던 지난 7월 말에는 1000여명이 집회에 참여했고, 이달 1일에는 무려 2000여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10만인 주민서명부와 공동건의문을 전달하며 기재부를 압박했다. 지역주민들의 집회와 함께 강원도의회 소속 의원들도 기재부 앞에서 7월과 8월에 걸쳐 한 달 가까이 사업 조기 이행 촉구 1인 시위를 벌였다.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을 기다려 온 숙원사업들이 정부 예산 문턱을 넘지 못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관련기사 2면

정부는 지난 11일 총지출 386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경기 활성화와 구조개혁,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 총지출을 올해(375조4000억원)보다 3.0% 늘렸다.

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정부가 그린 시나리오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정부의 이런 시나리오에 여전히 물음표가 찍힌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방향 중 하나로 경제혁신을 설정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중소기업 성장 등을 지원해 경제 재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내년 예산안 확대 편성 불구
동서고속철·제2경부고속 등
지역 주민들 의견·바람 외면
"경기회복 모멘텀 한계" 지적

하지만 실제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으로는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던 숙원사업 중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수두룩해서다.

동서고속화철도, 제2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오창~호법 구간 확장,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확장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SOC(사회기반시설)의 비중을 확대했다.

건설업이 제조업 등 다른 산업보다 경기 진작 효과가 훨씬 크다는 이유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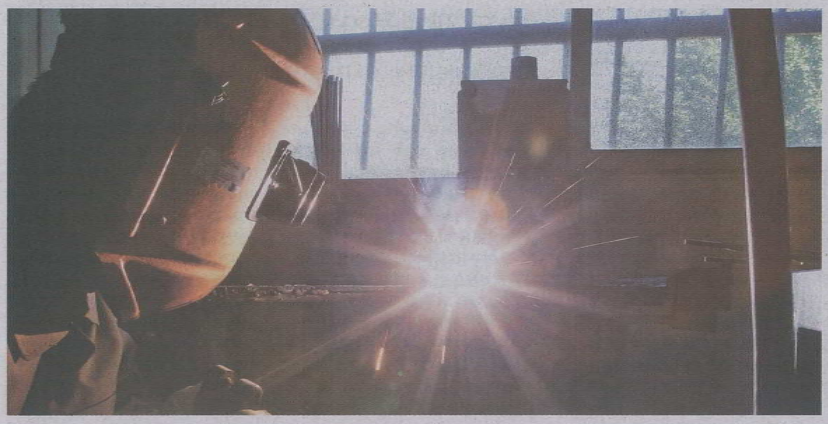
일각에선 경기의 완연한 반등을 위해 추경의 연장선에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부는 SOC 스톡(총량)이 충분하다며 SOC 예산을 다시 틀어쥐는 쪽으로 반년도 지나지 않아 입장을 바꿨다.

입맛대로인 정부의 예산 편성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 숙원사업의 현실화는 멀고 험난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동서고속화철도만 하더라도 예산 부족과 사업성 등을 이유로 30년을 끌어온 사업"이라며 "정부의 오락가락 예산 편성지침을 경기 회복을 최우선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 2015.09.21(월) 건설경제 】



지난 18일 충북 음성군 금왕읍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개최된 '제23회 건설기능경기대회'에 14개 직종 282명의 건설기능인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을 뽐내며 기량을 겨뤘다. 안윤수기자 ays77@

"건설, 최고의 匠人 찾아서"… 뜨거웠던 기술열전

건설기능경기대회 성황리 개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최삼규)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한국관업연력주단이 후원한 제23회 건설기능경기대회가 지난 18일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소재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건설기능경기대회는 건설 기능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한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90년 시작됐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권위 있는 대회다.

올해 대회에는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철근 △타일 △건축배관 △전기용접 △도장 △측량 △조경 △전산응용토목제도 △실내건축 △방수 등 14개 직종에 282명의 건설 기능인이 참가해 현장에서 연마한 기량을 겨뤘다.

이날 대회장에서는 조적분야의 서길용씨(76) 등 70세가 넘은 기능인이 두 분이나 참가해 젊은이들과 당당하게 경쟁해 눈길을 끌었다. 최연소 출전자인 건축목공분야의 임정훈(19)씨는 패기를 앞세워 선배들과 실력을 겨뤘다.

여성 근로자도 올해 7개 직종에 38명이 출전해 건설현장의 여성파워를 과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와 충청북도, 음성군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회원단체장, 유관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출전 선수들을 격려했다.

건단련은 이날 건설 기능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한 기능인력 양성을 지원하고자 대회가 열린 기술교육원에 건설기능인력 양성지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건설기능경기대회가 1992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로 23회째를 맞았다"며 "건설 기능인력 고령화와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한 기능인력 육성을 위해 이 같은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제23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출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안윤수기자

14개직종에 282명 참가
70세 넘는 기능인도
19세 최연소 출전자도
'정정당당' 실력 겨뤄
여성근로자 38명 출전

한편, 대회 시상식은 10월6일 개최될 예정이다. 1~3위 입상자 84명에게는 상금과 해당 직종의 기능사 자격증 시험면제 및 산업연수 특전이 주어진다. 직종별 1위 입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2위와 3위에게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상이 수여된다. 김정석기자 jskim@

지자체 종합평가낙찰제 연내 시범사업 '불투명'

행자부, 5건 내외 추진했지만
300억이상 공사 찾기 어려워

종합평가낙찰제 시범사업의 연내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지자체들이 시범사업 적용 시행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데다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를 찾기 어려운 형편이다.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공사비 300억원 이상 지자체 건설공사 입찰에 종합평가낙찰제를 본격 시행하고 이에 앞서 연내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7월 공청회에서는 5건 내외의 공사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행자부는 앞서 서울시와 SH공사, 서울시 중구청, 전라남도의 300억원 이상 공사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평가낙찰제 예규를 확정하는 대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지자체나 발주기관들을 방문해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본지 확인에 따르면 행자부가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과거 접촉했던 발주기관들 대부분이 현재는 시범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발주계획 가운데 아직 발주하지 않은 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소방행정타운(1단계) 건립공사(사업비 510억원) △서울기록원 건립공사(353억원) △마포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공사(350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소방행정타운(1단계) 건립공사는 11월 발주 예정인데 분리 발주하는 전기공사 등을 제외하면 건축공사는 공사비가 300억원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기록원 건립공사는 현재 설계 기간이 연장되면서 발주가 늦어지고 있다. 공사비는 당초보다 늘어나겠지만, 이 역시 전기공사 등을 빼면 본공사는 300억원이 안 될 수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 공사는 중간처리시설 변경 등 전면 재검토 수준에 이르면서 올해 발주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답변이다.

SH공사의 올해 남은 300억원 이상 공사는 항동지구 아파트 건설공사다. 그런데 이 공사는 현재 발주 준비가 상당히 진행돼서 이제 와서 종합평가낙찰제로 입찰 방식을 바꿀 수 없다는 게 SH공사의 설명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심사 기준과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해야 하는데 여력이 안 된다"며 "나머지 공사는 적격대상 공사로 시범사업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중구청의 서소문역사공원 조성사업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올해는 일부 절거공사가 시작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중구청은 설명했다. 또 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이 안 될 가능성도 크다고 답변했다.

올해 300억원 이상 공사로 국가지원도로 건설공사 4건을 발주계획에 올린 전라남도도 시범사업 집행은 어렵다고 밝혔다. 2건은 이미 발주했고, 나머지 2건은 연내 발주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시범사업을 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결국 행자부가 공청회에서 발표한 연내 시범사업 5건 내외 시행은 물론 1~2건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종합평가낙찰제는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새로운 입찰 방법으로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지자체 공사 입찰에 적용된다. 김정석기자 jskim@

건협 강원도회, 고성군에 장학금 500만원 전달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사진 오른쪽)은 지난 18일 윤승근 고성군수(왼쪽)를 예방하고 고성향토장학회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